

보도시점 2024. 11. 8.(금) 14:00 배포 2024. 11. 7.(목)

소똥을 발전소 연료로 사용, 자동차 110만대 분 온실가스 감축한다

- 환경부·농식품부·농협·남부발전, 가축분 고체연료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정부가 2030년까지 가축분(소똥)을 활용한 고체연료 하루 4,000톤 사용을 목표로 매년 자동차* 110만대 분의 온실가스(160만톤/년)를 감축한다.

* 10인승 이하 승용차 및 승합차량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125.2g/km) 기준(2016~2020년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 이행실적, 환경부) 및 2023년 기준 자동차 주행거리(비사업용 승용차 평균 주행거리 31km/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토대로 분석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협경제지주(대표이사 안병우, 이하 농협), 한국남부발전(사장 김준동, 이하 남부발전)과 함께 11월 8일 오후 농협카드 본사(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가축분 고체연료 활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온실가스 발생 등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고 △온실가스 감축, △수계지역 수질 개선 및 녹조 예방 등을 위해 발전소 등의 가축분 고체연료(이하 고체연료) 활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협약기관의 공감대 아래 마련됐다. 이를 계기로 고체연료 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협업을 강화한다.

가축분뇨 중 우분(소똥)은 현재 대부분 퇴비화되는데, 이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발생하고 하천 인근 등에 쌓이면 비와 함께 씻겨 내려가 녹조를 유발할 수 있다. 그러나 우분을 고체연료로 전환할 경우 화석연료 대체 등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과 녹조 예방 등 가축분뇨를 보다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에 환경부는 올해 3월 고체연료 보조원료 확대를 위한 실증특례를 허용하고, 농식품부는 같은 해 6월 남부발전 시험연소 등을 추진하는 등 고체연료 활성화를 추진했다. 양 부처는 이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남부발전에서 가축분 고체연료를 본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형 산업체 수요를 확보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2030년까지 고체연료 하루 4,000톤 사용을 목표로 생산시설 확충, 고체연료 품질개선 및 수요 확대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이 같은 목표가 달성되면 수질 개선 및 녹조 예방 효과는 물론 연간 160만톤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

* 가축분뇨 고체연료화 및 유연탄 대체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효과(고체연료 37.5톤 당 약 50톤의 온실가스 감축, 국립축산과학원)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그간 녹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간주되었던 소똥으로 석탄 등을 대체할 수 있는 연료를 생산하면서 수질오염까지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수단과 방법을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정부 부처간 협업에 그치지 않고 농축산업계, 발전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이번 협약에 따른 남부발전 고체연료 사용은 대형 산업시설의 고체연료 사용 첫 사례로서 산업계에 고체연료 본격 활용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면서, “협약기관 등과 함께 고체연료 품질개선 등을 추진하여 고체연료가 안정적으로 산업계에서 이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업무협약 행사 개요.

2. 업무협약서.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수질수생태과	책임자	과 장	김경록 (044-201-7060)
		담당자	사무관	장재훈 (044-201-7076)
		담당자	주무관	이신영 (044-201-7077)
담당 부서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책임자	과 장	서준한 (044-201-2351)
		담당자	사무관	이승환 (044-201-2357)

□ 행사 개요

- (일시/장소) '24.11.8(금), 14:00~15:00 / 농협카드본사(디타워 돈의문)
 - ※ 서울 종로구 통일로 134, 디타워 돈의문(농협) 20층 회의실
- (참석) 양부처 차관, 농협(경제지주대표), 남부발전(사장), 유관기관* 등 20명
 - * 수자원공사, 축산과학원, 에너지기술평가원, 전력연구원, 축산환경관리원 등

□ 주요 내용

- 가축분 고체연료 관련 관계기관 의견 청취
- 가축분 고체연료 활용 활성화 관련 업무협약 체결

□ 세부 일정(안)

구 분	시 간		내 용	비 고
사전환담	14:00~14:10	(10')	· 사전 환담(주요 내빈)	협약기관 등
	14:10~14:15	(5')	· 행사장 이동	-
내빈소개	14:15~14:20	(5')	· 행사장 입장 및 내빈 소개	사회 : 환경부 수질수생태과장
인사말씀	14:20~14:30	(10')	· 인사말씀	농식품부 → 환경부 → 남부발전 → 농협
협약체결	14:30~14:35	(5')	· 업무협력 MOU 서명 및 기념촬영	협약기관
간담회	14:35~14:45	(10')	· (발표) 가축분 고체연료 개선 과제	축산환경관리원
	14:45~15:00	(15')	· (간담회) 가축분 고체연료 활성화 관련 관계 기관 의견 청취 * 종료 후 전체 기념촬영	주요 참석자 2분 내외 발언

가축분 고체연료 활용 활성화를 위한 업 무 협 약 서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남부발전(주) 그리고 농협경제지주(이하 '협약기관')는 가축분 고체연료(이하 '고체연료') 활용 촉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고체연료 활용을 활성화하여 축산부문 탄소 감축 이행 및 수계지역 수질 개선과 녹조 예방을 위해 협약기관 간의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사항) 협약기관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의 사항에 적극 협력한다.

1. 환경부와 농식품부

가. 고체연료 생산시설 설치 지원

나. 고체연료 생산·이용에 참여하는 농가·시설 등에 대한 재정적·제도적 지원

2. 한국남부발전(주)

가. 수입재생에너지원 보다 고체연료 우선 이용

나. 고체연료의 안정적인 이용을 위한 설비 최적화

3. 농협경제지주

가. 농·축협 고체연료 생산시설 설치·운영 지원

나. 고체연료 생산용 가축분 수거체계 등 마련

4. 공통 사항

가. 고체연료 고품질화 등을 위한 R&D 협력

나. 고체연료 추가 수요처 발굴

제3조(공동기획단) ① 본 협약에 따른 협력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협약기관 등이 참여하는 '고체연료 활성화 공동 기획단(가칭)'을 구성·운영한다.

② 협약기관은 공동기획단의 협업과제 발굴 및 공동 추진에 적극 협조하며,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4조(정보교환) 협약기관은 협력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교환 또는 공유한다.

제5조(비밀유지) 협약기관은 업무 협력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협약의 목적 외 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이는 본 협약서의 효력이 종료된 이후에도 유효하다.

제6조(권리양도) 협약기관은 상대기관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협약서상의 지위, 권리 또는 의무를 임의로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제7조(협약서의 효력) 본 협약은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동안 유효하며, 그 이후에는 상호 합의 후에 연장할 수 있다.

제8조(기타) ① 본 협약서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과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협의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견차가 있거나 협약서의 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위와 같이 업무협약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후 협약서 각 1부씩 보관한다.

2024년 11월 8일



차 관 이 병 화 _____



차 관 박 범 수 _____



사 장 김 준 동 _____



대 표 안 병 우 _____